

# 益山 帝釋寺址 一考察\*

-‘更造寺’의 位置問題를 中心으로-

金 善 基

Kim, Sunki  
圓光大學校博物館

## 一. 머리말

익산지역은 王宮里遺蹟, 彌勒寺址, 연동리사지, 익산쌍릉, 성남리고분군 및 성곽 등 수 많은 백제시대의 유적이 산재해 있어서 오래 전부터 학계의 관심을 받아온 지역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백제 무왕의 익산 別都說<sup>1)</sup> 및 遷都說<sup>2)</sup>이 대두되었고, 나아가 부여가 행정적인 수도라고 한다면, 익산은 정신적인 수도라고 하는 주장까지 대두되었다.<sup>3)</sup>

王宮里遺蹟 동쪽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궁평마을에 위치한 帝釋寺址도 백제시대에 창건된 사찰로서 오래 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익산지역에 帝釋寺址가 존재할 가능성은 일단 이 지역이 일제 초기인 1913년 이전에는 帝石面이라고 불려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4)</sup> 그리고 이 지역에서 출토되어 1942년 국립공주박물관에 기탁된 ‘帝釋寺’명의 명문기와와 함께 백제시대 와당들은<sup>5)</sup> 이 곳이 바로 백제시대의 帝釋寺址임을 확증하게 하였다.

帝釋이라고 함은 불교의 우주관에서 본 須彌山 산정인 忉利天에 거주하는 천주로서 호국안민하고 인간의 선악을 주재하는 신으로 숭앙되어지고 있다.

\* 본 연구는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연구학술재단의 2001년도 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金正浩, 『大東地志』 益山條

今益山 百濟武王 置別都於此

2) 金三龍, 1977, 『益山文化圈의 研究』,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3) 申螢植, 1994, 『百濟史上에 있어 益山의 位置』, 『益山文化圈研究의 綜合的 檢討』, 第12回 馬韓百濟文化 學術會議 發表要旨, pp.38-39.

4) 『益山郡誌』 『面里建廢沿革』條

『帝石, 郡東南近則十里遠則十五里』

5)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3, 『百濟瓦磚圖錄』, p.237 · p.277.

이러한 제석을 바탕으로 한 제석신앙은 신라의 경우 임금의 내제석궁(天柱寺) 행차 기록과 함께 왕이 창건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고려는 건국초에 태조 왕건이 창건한 10대 사찰 중 내제석사와 외제석사가 있고, 익산의 帝釋寺址도 백제 무왕이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서 왕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찰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왕실에서 다투어 제석신앙을 숭앙하고 있음은 國祖信仰이 天帝信仰으로,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 불교의 帝釋信仰으로 전개되어 왕실의 권능이 불교에 의해 신장되고 보호되어 가는 한편, 밖으로는 호세안민의 기능을 위한 제석사의 창건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6)</sup>

이후 帝釋寺址는 문헌자료인 “觀世音應驗記”가 일본 京都大學 인문과학 연구소 교수였던 마키다 박사에게 의해 소개되면서<sup>7)</sup> 더욱 학계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이 문헌은 중국 육조시대에 陸攄 등이 지은 것으로 말미에 있는 백제 관계 기사에서 帝釋寺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백제 무왕이 柶慕蜜地에 천도하여 제석정사를 지었는데 貞觀13년(639) 11월에 뇌우에 의하여 佛堂과 七級浮圖 및 廊房이 모두 불타버림을 기록하고, 아울러 다시 사찰을 지어 불타지 않은 사리장엄구를 봉안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문헌자료를 통해 帝釋寺址는 칠층목탑과 불당을 갖추고, 주위를 회랑으로 감싸는 전형적인 백제시대 가람의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sup>8)</sup>

이 帝釋寺址에 대해서는 1993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의해 시굴조사가 실시된바 있다.<sup>9)</sup> 당시 寺域 內에는 민가와 민묘가 분포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목탑지는 민묘가 축조되어 있어서 전혀 손을 댈 수 없었으므로 그 주변 일대를 비롯해서 금당지와 강당지 일부만이 조사되었다. 여기에서는 당시 조사성과를 간단히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나타난 ‘更造寺’의 위치비정과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6) 洪潤植, 1977, 『百濟의 帝釋信仰攷』, 『馬韓百濟文化』 2,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7) 牧田諦亮, 1970, 『六朝古逸觀世音應驗記研究』, 平樂寺書店.

8) 金善基·林洪洛, 1998, 『益山の 寺址와 傳統寺刹』, 益山文化院, pp.39-40.

9) 金善基 외, 1994, 『益山帝釋寺址試掘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 二 調 査 概 要

### 1. 遺構調査內容

#### 1) 金堂址

金堂址는 동쪽에 민가가 자리잡고 있어서 서쪽 일부만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금당지에서 확인된 기단석재는 하층기단 지대석 일부가 남아 있었고 기타 기단석재나 계단석재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석재들이 빠져나간 흔적과 인근 주택에 사용되고 있는 석재들을 통해서 그 규모나 구조는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단구조는 미륵사지 탑지나 금당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면석을 겸한 하층기단지대석 위에 판석형의 갑석을 올려놓았고, 미끄럼방지턱이 있는 상층기단 지대석<sup>10)</sup> 위에 다시 면석과 갑석을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층기단을 중심하면 금당지의 규모는 전면 31.7m, 측면 23.2m로 223평이며, 상층기단을 중심하면 전면 29.0m, 측면 20.5m로 약 180평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규모는 미륵사지 중원 금당지보다 더 큰 형태이다. 기단토의 상면이 대부분 깎여나가 柱間 등의 규모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계단지는 전면에 장대석이 빠져나간 흔적만 확인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폭은 4.6m로 판단된다. 북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측면에 계단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단토는 백제시대 일반적인 탑이나 금당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판축기법에 의해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판축층은 10cm 내외의 두께로 이루어졌는데, 생토층 상면에서 5층까지는 주로 사립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사토계통의 흙을 부어 다졌으며, 그 위로는 점토와 마사토를 교대로 부어 다졌다.

#### 2) 講堂址

강당지도 동쪽은 민가가 분포하고 있어 서쪽 일부만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강당지의 시굴갱 내에서는 기단석재가 완전히 일탈되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단지 기단 지대석이 빠져나간 흔적을 통해서 그 규모를 조금이

10) 이러한 基壇構造는 전형적인 백제 기단구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소산 西腹寺址, 익산 彌勒寺址 그리고 최남단에는 고창 禪雲寺에서 확인된다.(金善基, 2000, 『高敞禪雲山道場의 考古學的 研究』, 『韓國文化의 傳統과 佛敎』, 蓮史洪潤植教授 停年退任記念論叢刊行委員會, pp.637-638.)

나마 알 수 있었다. 기단석재가 남아 있지 않아서 기단의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으나 미륵사지의 예와 같이 지대석과 면석·갑석을 갖춘 단층기단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금당지 계단 중심선에서 좌우 대칭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강당 전면 길이는 52.7m, 측면은 18.4m로 판단되어 기단을 중심으로 한 평면규모는 294평으로 확인되었다. 상당 부분이 삭토되어 생토층만 남아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기단구축토의 상황을 알 수 없고, 단지 생토층을 파고 기단지대석을 매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其他地域

木塔址 남쪽은 中門이 위치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묘역을 침범할 수 없어 목탑의 중심에서 남쪽으로 약 35m 떨어진 곳에서부터 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관련유구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토층 단면조사에서 생토층 위에 두께가 약 1m 내외의 성토층이 확인되었다.

寺域의 서쪽부분은 대부분 논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회랑지 등의 유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굴갱을 설치·조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경작토 바로 아래에서 생토층이 보이고 있고, 현 목탑지와의 심한 고저차로 보아 경작을 위한 삭토과정에서 유구는 이미 완전히 멸실되어 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 2. 出土遺物

帝釋寺址에서 출토된 유물은 건물지와 관련된 기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찰의 중심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금당지와 강당지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조사였기 때문에, 토기와 같은 생활유물들은 약간만 출토되었을 뿐이다. 기와류는 수막새가 백제계의 단판단엽연화문수막새와 통일신라계의 복엽단판연화문수막새로 2종류이다. 그리고, 인동당초문암막새와 「巳毛」 「午斯」 「上口乙瓦」 銘의 印章瓦, 「丁易」 「丁易寺」 「帝釋寺」 銘의 명문기와가 대표적인 유물이다. 이 외에 암수키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단엽단판연화문수막새는 8엽의 꽃잎을 두툼하게 처리하고 꽃잎의 끝을 반전시켜 볼륨감이 있다. 꽃잎 사이사이에는 역삼각형 돌기로서 간엽이 표현되었다. 子房部는 1조의 陽刻圓圈으로 구획되어 있고, 안에는 1+5顆의 蓮子が 배치되어 있다. 총 13점이 출토되었는데 금당지 남측 기단부 조사에서 7점, 강당지 서남측 기단부 조사에서 2점이 수습되었으며 나머지는 사역 서편 시굴갱에서 확인되었다.

복엽단관연화문수막새는 8엽의 꽃잎이 굵은 陽刻線의 화륜으로 표현되어 있고 꽃잎 안에는 2개의 細長한 子葉이 도톰하게 표현되어 복엽을 이루고 있다. 꽃잎과 꽃잎 사이에는 양각선으로 'V'형태의 간엽을 표현하였고, 周緣部는 무문이다. 子房部는 단면 半球形으로 낮게 돌출시키고 주위를 1조의 양각원권으로 구획하였을 뿐 연자는 없다. 강당지 서남측 기단부 조사 중 암갈색사질점토층에서 다량의 외편들과 함께 16점이 출토되었다.

인동당초문암막새는 백제계로서 드림새 중앙에 鬼面紋이 시문되었는데 큰 눈과 코, 크게 벌린 입과 날카로운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하였다. 귀면문을 중심으로 좌우 양단을 향해 인동당초문이 유려하게 뻗어 있는데, 당초 줄기가 꺾이는 곳마다 5엽으로 표현된 忍冬花가 滿開되어 있다. 드림새의 양 측면을 제외한 상단과 하단에 비교적 높은 무문의 주연대가 있다. 상단의 주연대는 암키와를 그대로 사용했고, 하단은 폭이 1.8cm내외로 넓으며 드림새 뒷면에는 등근 단이 있다. 암키와와의 접합은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으며, 접합된 암키와는 등면에 약하게 단선문의 타날흔이 남아 있으나 깔끔하게 정면 처리되어 있다. 내면에는 울이 성긴 마포흔이 있으며, 기와 절개면은 물론 내면 측단까지 조정되어져 있다. 주로 금당지 남쪽 시굴갱에서 백제시대 기와와 함께 출토되었다.

『巴,毛』명 인장와는 기와의 등면에 희미한 단사선문이 남아 있으며, 말각 방향에 가까운 음각원권 안에 毛자가 음각되어 있고, 그 위는 타지역의 출토 예로 보아 巴자로 판단되는 글자가 있다. 『午,斯』명 인장과 기와의 등면에는 단사선문이 시문되었으며, 음양각 이중원권 안에 年자와 斯자가 각기 양각되어 있다. 『上,乙瓦』는 하나의 음각원권 안에 음각되어 있는데 기와의 등문양으로 단사선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인장와는 백제시대의 것으로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성지 및 부여지방에서 출토되고 있다.

『丁易』명 명문와는 무문의 등면에 큰 글씨로 여러 곳에 반복 양각 타날되어 있다. 이러한 명문와는 등문양에 있어서 다른 양상을 나타내지만 王宮里遺蹟 금당지와 강당지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sup>11)</sup> 『丁易寺』명 명문와는 격자문과 짧은 사선문이 복합 시문된 문양대에 좌서로서 양각되어 있는데 등문양의 형태로 보아 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丁易』명 명문와와 같은 통일신라시대의 기와이다. 『帝釋寺』명 기와의 명문대는 방곽의 형태이며, 위아래에 어골문이 시문되었다. 주변에서 같이 출토되는 기와들로 보아 이 기와도 통일신라시대의

11) 扶餘文化財研究所, 1997, 『王宮里』發掘調査中間報告II, p.155.

명문와로 판단된다.

평기와는 백제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양분되는데 대부분 백제시대의 무문과 단선문을 가진 것이 주류를 이루며, 통일신라시대의 것은 문양의 종류는 다양하나 양은 많지 않다. 백제계 암키와의 내면에는 예외없이 통쪽와 통의 흔적이 살피지며, 마포 올의 크기가 매우 굵고 성글다. 와도의 처리는 양쪽 모두 안쪽에서 잘랐으며 일부는 측단의 내면까지 조정한 흔적도 살피진다. 수키와는 토수와와 미구와가 함께 보이며, 마포의 올은 역시 굵고 성글다. 와도흔으로 보아 대부분 양쪽 모두 등면에서 잘라서 분리시켰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평기와는 무문, 선조문, 격자문, 어골문, 방곽문, 기타복합문 등이 출토되었다. 암키와는 원통와통으로 제작되었고, 마포흔은 비교적 가늘고 고우며 마포흔 위에는 비와 같은 도구에 의한 쓸림흔이 살피진다. 와도의 처리도 양쪽 모두 안쪽에서 잘랐다. 수키와는 토수와가 대부분이며, 마포흔도 암키와와 같은 양상이고, 와도처리는 양측단이 모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한쪽은 등면에서, 다른 한쪽은 내면에서 자른 후 분리시켰음을 알 수 있다.

### 三. 伽藍配置

금번 조사가 塔址 주변의 墓域과 民家가 있는 동쪽 및 북쪽 일부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시굴조사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寺刹의 伽藍配置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와 문헌 등을 바탕으로 가람배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목탑지는 조사를 하지 못하여 그 정확한 구조나 규모 등을 규명할 수는 없었으나 지표관찰을 통해 얻어지는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목탑지에는 사방으로 한변이 12m 정도에, 높이가 1.5~2m 내외의 土壇이 남아 있고, 그 위에 2매로 절단된 心礎石이 놓여 있기 때문에 한눈에 목탑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목탑의 기단규모는 한변이 12m 내외일 것으로 판단되며, 높이는 민묘 조성시 목탑지 상면에 성토했을 가능성이 있어 기단의 높이는 약 1.5m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당지가 彌勒寺址와 같은 형식인 二重基壇의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sup>12)</sup> 이곳 목탑지도 이중기단의 구조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觀世音應驗記”에 ‘七級浮圖’의 소실이

12) 益山 彌勒寺址에서는 塔址와 金堂址에서 二重基壇構造가 확인되었다.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목탑은 7층임을 알 수 있다. 이 위에 2매로 절단된 심초석이 있는데 이를 복원하면 한 변의 길이 1.8m이고, 높이 0.7m의 크기이며, 상면은 長方形의 형태로 잘 가공하였다. 그리고 이 중앙에 길이 60cm, 폭 26cm, 깊이 18cm의 舍利孔이 있다.

금당지와 강당지의 규모와 구조 등은 유구조사의 개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리고 탑 남쪽에 중문지가 위치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전혀 조사를 할 수 없었으며, 설령 남아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삭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탑지의 센터에서 남으로 약 60m 이상까지 성토를 하여 垆地를 조성한 것으로 보아 여기에 중문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회랑지도 삭토되어 조사지역 내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단지 “觀世音應驗記”에 廊房의 소진을 기록하고 있어서 회랑의 존재 가능성은 높다. 강당지 좌우에는 부속 건물지나 북회랑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곳 역시 이미 유실되어 유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양상을 종합하면, 帝釋寺址의 가람배치는 중문과 탑, 금당, 강당을 남북선상에 배치하는 전형적인 백제시대의 一塔一金堂 가람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적으로 탑지와 금당 사이의 基壇距離가 25m로 추정되고, 금당지와 강당지 사이의 基壇距離는 25.4m로 확인되어, 이들은 거의 같은 간격을 두고 건물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탑 남쪽에 배치된 中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탑과 금당의 중심간 거리는 42.6m로 추정되고, 금당과 강당의 중심간 거리는 46.2m로 확인된다.

#### 四. 伽藍의 存續時期

帝釋寺址의 창건에 관한 내용은 “觀世音應驗記”에 잘 나타나 있다. 바로 백제 무왕이 枳慕蜜地에 천도하여 새로운 절을 지었는데 貞觀13년(639) 뇌우에 의해 제석정사가 소진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sup>13)</sup> 기록을 통해 보면, 帝釋寺址는 7세기 전기인 백제 무왕대에 창건된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금번 시굴조사에서 출토된 기와 등의 유물을 통해 보았을 때, 특히 백제 수막

13) 『觀世音應驗記』

百濟武曠王遷都 枳慕蜜地 新營精舍. 以貞觀十三年歲次己亥冬十一月, 天大雷雨, 遂災帝釋精舍.

새 중에서 가장 말기에 해당하는 단판단엽연화문수막새의 출토로 상한연대는 백제말기에 해당하므로 무왕의 창건기록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기와를 통해서 정확한 연대를 밝힐 수 없지만 복판단엽연화문수막새를 통해서 통일신라시기가 하한연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막새는 王宮里遺蹟에서도 출토되어 두 유적이 거의 같은 시기에 함께 존속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帝釋寺’명 명문와의 방곽형의 명문대와 그 위아래에 시문된 어골문으로 일견 고려시대의 기와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고려시대 유물의 전무함으로 미루어 이 기와도 통일신라로 편년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帝釋寺址의 건물지별 유물 출토현황에서 금당지와 강당지의 출토 유물의 상이함에 주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동당초문암막새는 금당지에서만 출토되었고, 수막새로 백제시대의 형식인 단엽단판수막새가 금당지에서 7점, 강당지에서 2점, 기타 시굴조사지역에서 4점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통일신라형식인 복엽단판수막새는 금당지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강당지에서만 16점이 출토되었다. 금당지에서 출토되는 암키와는 백제시대의 것이 98%를 차지하고 나머지 2%만이 통일신라시기의 기와이며 통일신라시대 수키와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강당지에서는 대부분의 基壇土가 삭토되었기 때문에 통계 결과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암키와의 경우 백제시대의 것은 78%이고 통일신라시대의 것은 22%로서 금당지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키와는 백제시대의 것이 47%이고 통일신라시대의 것은 53%로서 통일신라시대의 것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 또한 백제시대 인장와들은 대부분 주변의 試掘坑에서 출토되고 있지만, 통일신라시대의 명문와인 ‘丁易’명와는 강당지에서만 출토되고 있고, 역시 통일신라시대의 명문와인 ‘丁易寺’명와는 금당지에서 3점, 강당지에서는 5점이 출토되었는데 금당지출토 명문와는 대체적으로 교란된 층에서 출토된 것들이다.<sup>14)</sup> 이와 같은 현상은 금당지는 백제시대에만 사용되었으며, 강당지는 백제시대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시대에도 사용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금당지의 백제기와들은 주로 전면기단 전방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상당히 안정된 층위를 형성하고 있어 인접한 목탑지 역시 백제시대에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금당지 주변에서 출토되는 암수막새는 단 한 종류만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은 중창이나 중건이 없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觀世音應驗記”에 기록된 불타지 않은 舍利莊 嚴具를 안치하기 위해 절을 다시 지었다고 하는 更造寺의 위치는 帝釋寺址가

14) 金善基 외, 1994, 『益山帝釋寺址試掘調查報告書』,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pp.36-40.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五. ‘更造寺’의 位置問題

“觀世音應驗記”에는 帝釋寺址의 창건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뇌우에 의한 소진, 가람구성의 내용, 사리장엄의 내용, 가람 재건의 사실 등을 잘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의 원문을 옮겨 놓으면 다음과 같다.

‘百濟武廣王遷都 枳慕蜜地 新營精舍. 以貞觀十三年歲次己亥冬十一月天大雷雨 遂災帝釋精舍 佛堂七級浮圖, 乃至廊房一皆燒盡. 塔下礎石中, 有種種七寶, 亦有佛舍利, 眎水精瓶. 又銅以作紙, 寫金剛波若經, 貯以木漆函. 發礎石開視, 悉皆燒盡. 有佛舍利瓶與波若經漆函如故……於是, 大王及諸宮人倍加敬信. 發卽供養, 更造寺貯焉.’

이를 통해 보면 백제 무왕이 枳慕蜜地에 천도하여 새로운 사찰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 무왕의 천도여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일단 枳慕蜜地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익산의 현 王宮里遺蹟 주변 구릉에 ‘모지밀’이라고 전칭되는 지점으로 추정하기도 하며,<sup>15)</sup> 益山の 옛 이름으로 보기도 한다.<sup>16)</sup> 그리고 帝釋寺라는 사찰명이 확인되는 지역은 이곳 帝釋寺址 뿐이기 때문에<sup>17)</sup> 위의 기록은 바로 익산 帝釋寺址를 지칭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그리고 금번 시굴조사에서 출토된 가장 이른 시기의 기와들은 백제말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석사의 무왕 창건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기록의 말미에 나타나는 ‘更造寺貯焉’의 내용이다. 즉 사찰을 다시 세워 불에 타지 않은 사리장엄구를 봉안하였다고 하는 사실인데, 금당지의 시굴조사에서는 전혀 재건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 금당지는 대부분 삭토되거나 교란되었지만 남쪽 계단지 조사중에 백제시대의 단엽 단판연화문수막새와 인동당초문암막새 그리고 산화된 백제시대 평기와편들과 燒土 등이 섞인 안정된 퇴적층이 확인되고 있어서, 이곳이 무왕 창건의 제석정사라고 한다면 貞觀13年 소진 당시의 상태 그대로 보존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15) 黃壽永, 1973, 『百濟帝釋寺址의 研究』, 『百濟研究』 4,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p.13.

16) 柳在泳, 1997, 『益山 ‘枳慕蜜’ 地名考』, 『馬韓百濟文化』 2,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pp.165-167.

17) 1942년 이 지역에서 『帝釋寺』명의 銘文瓦가 수습된 바 있으며,(황수영, 1973, 앞글, p.11.) 금번의 試掘調査에서도 같은 銘文瓦 2점이 확인되었다.

리고 금당지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백제시대의 것이다. 그렇다면 재건사찰은 익산지역 내 다른 지역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선 익산지방에서 보이는 백제시대 사찰로 미륵사지를 비롯한 師子寺, 五金寺, 蓮洞里寺址, 현 胎峰寺 등을 들 수 있다. 문헌기록을 통해 보면, 익산지역에서는 師子寺가 가장 먼저 창건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sup>18)</sup> 그 위치가 현 미륵산 중복이므로 탑을 세울 만한 지리적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sup>19)</sup> 金鍾萬의 와당 분류에 의하면 미륵사지는<sup>20)</sup> 연관이 길고 판단이 尖形으로 되어있는 IC형의 수막새와, 판단이 하트형으로 변하는 II B형만 출토되고, 帝釋寺址나 王宮里遺蹟에서 출토되는 가장 늦은 형식인 III B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帝釋寺址보다 이른 시기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蓮洞里寺址는 발굴조사 결과 탑이 없이 금당만을 조성한 가람임이 확인되었으며,<sup>21)</sup> 胎峰寺는 작은 백제삼존불이 출토된 지역으로 탑이 들어 설만한 입지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sup>22)</sup> 五金寺는 報德城南, 즉 오금산 남쪽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조사 결과 그 위치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sup>23)</sup> 그렇다면 여기서 남는 것은 바로 王宮里遺蹟에서 확인되는 백제시대 목탑지 뿐이다.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중인 王宮里遺蹟 중 현 석탑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백제시대 앞선 시기의 건물지가 있고, 뒤이어 이 건물지를 파괴하고 굴광판축을 한 목탑지가 확인되었으며,<sup>24)</sup> 이어 통일신라시대에 조영된 현재 남아 있는 왕궁리오층석탑이 있다. 여기에서 출토되는 수막새는 판단이 하트형인 II B형 수막새와 함께 III B형-帝釋寺址에서 나오는 단엽단판수막새와 동일한 와범을 사용한 수막새-이 출토되고 있다. III B형 수막새는 1976년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조사할 당시 성곽의 남문지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여러

18) 『三國遺事』 武王條를 통해 보면 彌勒寺를 창건하기 전 武王이 知命法師 소거의 師子寺를 찾아가는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19) 扶餘文化財研究所, 1994, 『獅子庵』 發掘調査報告書.

20) 金鍾萬, 2002, 『泗水時代 瓦에 나타난 社會相 小考』, 『國立公州博物館紀要』, 國立公州博物館, pp.50-52.

21) 金善基, 1990, 『益山百濟蓮洞里寺址 調査研究』, 『韓國哲學宗教思想史』, 如山 柳炳德博士 華甲記念論叢, 圓光大學校 宗教問題研究所.

22) 金善基·林洪洛, 1998, 『益山の 寺址와 傳統寺刹』, 益山文化院, pp.123-127.

23) 『新增東國輿地勝覽』 『益山郡』條

五金寺, 在報德城南, 世傳薯童事母之孝, 掘薯蕷之地, 忽得五金, 後爲王創寺其地因名焉.

(五金寺址로 전해져오는 五金山 남쪽지역에 대해서는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에서 試掘調査를 실시하였으나 寺址의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다.)

24)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7, 『王宮里』 發掘調査 中間報告II, pp.39-54.

점 출토된 바 있다.<sup>25)</sup> 부여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수량을 보면,<sup>26)</sup> 역시 남쪽 성벽에서 25점, 서쪽 성벽·1호가마·동편건물지·담장시설유구에서 각각 한장씩 동서석축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帝釋寺址에서 출토된 IIIB형 수막새는 남쪽성곽과 관련 있는 유물로 판단된다.

그리고 왕궁리유적의 굴광관축 목탑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II B계의 수막새 출토현황을 3차 보고된 것까지 종합해 보면, 탑 주변에서 17점, 탑 주변 동서석축에서 90점, 금당지 24점, 강당지 5점, 남쪽 성벽에서 23점, 동쪽 성벽에서 10점, 서쪽 성벽에서 18점으로 주로 목탑지 주변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아 굴광관축 목탑지는 帝釋寺址 보다 앞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帝釋寺址는 익산에서 가장 늦게 조영된 백제시대 사찰임이 확실하며, “觀世音應驗記”의 ‘更造寺貯焉’이라는 기록이 사실이라면 사리장엄구를 다시 봉안했다는 재건사찰의 위치는 바로 帝釋寺址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제석정사의 원래 위치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는데 바로 王宮里遺蹟의 목탑을 포함하는 王宮里廢寺址가 주목된다.

王宮里遺蹟은 지금까지 백제 무왕의 宮城이고, 무왕대에 조영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런데 王宮里遺蹟에서 출토된 유물 중 주목이 되는 것은 오층석탑에서 동쪽으로 70여m 떨어진 곳에서 출토된 중국청자의 몸체부편이다.<sup>27)</sup> 이는 하북성 경현에 있는 北朝時期 北齊 河清四年의 封子繪墓에서 출토된 연관문준과 같은 형태로 565년이라는 절대연대가 확인되고 있다.<sup>28)</sup> 또한 金鍾萬은 II B1형을 567-588년에 출현된 것으로 편년하고 있으며,<sup>29)</sup> II B2는 이보다 발전된 형태로 보고 있다. 나아가 II B1형이 威德王과 관련이 있었다면, II B2형은 익산지역 개발의 주역이었던 武王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데<sup>30)</sup> 王宮里遺蹟에서는 II B1형도 출토되고 있다.<sup>31)</sup> 적극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

25) 鄭明鎬, 1977, 『益山 王宮里城址』發掘調査略報告, 『馬韓百濟文化』2,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26) 3차 보고서까지 발간되었는데 여기에 보고된 수량의 합산이다.(扶餘文化財研究所, 1992, 『王宮里遺蹟發掘中間報告書』.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7, 『王宮里』發掘調査中間報告II.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1, 『王宮里』發掘調査中間報告III.)

27) 扶餘文化財研究所, 1992, 『王宮里』遺蹟發掘中間報告書, pp.145-146.

28) 權奎山, 2002, 『三國兩晉南北朝時代靑瓷的發展』, 『古代 東亞細亞와 三韓·三國의 交涉』, 福泉博物館, pp.33-34.

29) 金鍾萬, 2002, 앞글, p.59.

30) 金鍾萬, 2002, 앞글, p.63.

31)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7, 『王宮里』發掘調査中間報告II, p.519, 도판 105-5.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1, 『王宮里』發掘調査中間報告III, p.515, 도판 36-4.

니지만 王宮里遺蹟에서 출토된 素文수막새나 太極紋수막새는 부소산성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首府’명 인장와도 아직까지 부소산성 출토에 외의 보고사례가 없다고 한다.<sup>32)</sup> 그리고 백제 무왕은 익산에서 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三國遺事”에서는 단지 국도 남쪽 연못가의 과부와 용이 교통하여 서동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sup>33)</sup> “東國輿地勝覽” 山川조에 ‘馬龍池는 오금사 남 백여보에 있는데 世傳에는 薯童대왕 어머니의 築室處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34)</sup> 현재 오금산 남쪽에 馬龍池가 위치하고 있는데 연못 동쪽에 접하여 넓은 대지가 있고 여기에 이른 시기의 백제시대 기와들이 보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sup>35)</sup> 무왕이 익산에서 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王宮里遺蹟에서는 6세기 중엽의 중국청자와 威德王과 관련된 6세기 후반에 출현하는 수막새의 출토, 본 유적 외 부소산성에서만 출토되는 일부 막새와 명문와, 무왕의 출생 등을 고려하면, 백제의 益山經營 나아가 왕궁리 유적의 조영 즉, 왕궁리폐사 목탑지 주변 건물의 조성은 무왕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처음 왕궁성의 축성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축조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무왕의 즉위 이후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왕궁리유적의 前半部는 왕실의 願刹로 개축<sup>36)</sup>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37)</sup> 왜냐하면 王宮里遺蹟의 성곽이 평면상 주변의 지세를 따르지 않고 장방형으로 구축된 점은 처음부터 계획된 설계에 의해 치밀하게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王宮里遺蹟의 건물배치를 보면, 남쪽 성곽에 3개소의 門址가 확인되고, 中門을 중심축으

32) 崔孟植, 1999, 『王宮里遺蹟 發掘의 最近成果』, 『馬韓百濟文化』,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pp.95-97.

33) 『三國遺事』 『武王』條

第三十, 武王名璋, 母寡居, 築室於京師南池邊, 池龍交通以生, 小名薯童.

34) 『新增東國輿地勝覽』 『益山郡』條

馬龍池, 在五金寺南百餘步, 世傳薯童大王母築室處

35) 筆者는 이곳에 넓은 건물터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踏査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繩蓆文이 타날된 百濟 平기와편을 採集한 적이 있다.

익산에서 백제시대 瓦窯址는 宰釋寺址 북쪽에 위치한 한 곳만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II B1형의 수막새가 채집될 뿐 II형식의 瓦窯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II B형 수막새는 부여 출토 수막새와 동일 와범으로 판정되어 주목된다.

36) 여기서 改築이라고 하는 것은 木塔 굴광판축이 앞선 시기의 百濟時代 建物址를 파괴하고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37) 藤澤一夫는 왕궁리폐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 입지가 王城의 내부에 있어 북의 王宮과 남 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國王의 願寺임이 일목요연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藤澤一夫, 1977, 『百濟別都益山王宮里廢寺即大官寺考』, 『馬韓百濟文化』 2,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p.153)

로 하여 북쪽에 목탑의 굴광판축이 확인된다. 만약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궁성이라고 한다면 이에 걸맞는 통치를 행하기 위한 권위건축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찰이 들어서 있다고 하는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백제 무왕은 泗泚宮을 중수하기 위하여 익산이 아닌 熊津城에 약 5개월 동안 移御하고 있었다.<sup>38)</sup> 또한 王宮里遺蹟 서쪽부분에서 최근 백제시대 工房關聯 유구가 확인되었다.<sup>39)</sup> 만약 통치를 행하는 궁궐이었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帝釋信仰은 國祖信仰이 天帝信仰으로, 아니면 天帝信仰이 國祖信仰으로,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이 불교의 제석신앙으로 다시 전개되어 사원 내에서 성행하게 되었으며, 國祖信仰과 결부되어진 제석신앙은 다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왕실을 보호하는 신앙으로 왕실 내에서 성행했다고 한다.<sup>40)</sup> 그러므로 백제의 익산경역에 있어서 제석사의 창건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黃壽泳은 우리나라 고대 諸國에서 제석사가 宮域 內에 있었거나 그와 매우 인접해 있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고 하고, 신라의 제석사는 眞平王대에 창건되었으며 ‘內帝釋宮’이라 호칭되어 宮域 안에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고려 태조가 창립한 십대사찰 중 內帝釋寺와 外帝釋寺가 보이는데 전자는 궁궐 또는 도성과의 관계를 말하여 준다고 한다.<sup>41)</sup> 이러한 상황을 통해 보았을 때, “觀世音應驗記”의 ‘更造寺貯焉’이 사실이라면 王宮里遺蹟의 목탑지를 포함하는 王宮里廢寺는 현 帝釋寺址의 전신이거나 최소한 제석을 모시는 도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sup>42)</sup>

그렇다면 여기서 ‘大官寺’와의 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太宗武烈王 8년조(661)를 보면, 大官寺 우물에서 피가 넘쳐 金馬郡 땅의 다섯보까지 흘렀다고 하는 異變記事와 함께 太宗武烈王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sup>43)</sup>에서 익산지역에 大官寺라고 하는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

38)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武王31年條

三十一年，春二月，重修泗泚之宮，王幸熊津城，夏旱，停泗泚之役，秋七月，王至自熊津。

39)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2, 『2002年 王宮里遺蹟 發掘調査 指導委員會議資料』

40) 洪潤植, 1977, 『百濟의 帝釋信仰攷』, 『馬韓百濟文化』 2,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pp.46-47.

41) 黃壽永, 1973, 『百濟帝釋寺址의 研究』, 『百濟研究』 4,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p.12.

42) 여기에 대해서 藤澤一夫는 “觀世音應驗記”에 나오는 ‘新營精舍’는 遷都와 精舍의 건립이 同時일 것으로 느낀다고 하고, 遷都와 동시에 新營着手의 精舍는 王宮과 宮城에 공존하는 王宮里廢寺로 보고 있다. 하지만 貞觀13년에 불탄 ‘遂災帝釋精舍’의 帝釋精舍는 新營精舍보다 뒤에 건립된 것으로 현 帝釋寺址를 지목하고 있다.(藤澤一夫, 1977, 『百濟別都益山王宮里廢寺即大官寺考』 『馬韓百濟文化』 2,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p.152)

고, 그 위치는 王宮里遺蹟으로 보인다.<sup>43)</sup> 661년은 백제멸망 다음해이므로 백제 시대의 사찰명도 大官寺일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王宮里遺蹟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명문화를 통해 보면, 사찰명이 ‘大官官寺’, ‘大官宮寺’, ‘官宮寺’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평기와 중도 기와 성형작업 도중 날카로운 막대기나 금속기구로서 침서된 ‘官宮寺’명 명문이 확인된 바 있다.<sup>44)</sup> 그런데 이 기와들은 모두 통일신라기에 해당하여 현 왕궁리오층석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백제시대에도 王宮里廢寺를 大官寺나 大官宮寺 혹은 大官官寺로 불러졌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 六 맺는 말

익산 帝釋寺址는 “觀世音應驗記”의 발견과 함께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유적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試掘調査가 1993년에 이루어졌는데 목탑지를 제외한 금당지, 강당지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제석사지는 남북 일직선상에 탑과 금당, 강당을 배치하는 전형적인 백제시대 一塔一金堂의 배치양식을 취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금당지는 백제시대에만 사용되었고, 강당지 주변은 통일신라시대까지 존속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觀世音應驗記”에 의하면, 貞觀13年(639) 11월에 뇌우로 인해 불났는데 타지 않은 舍利莊嚴具를 다시 절을 세워 안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금당지 조사에서는 단엽단관연화문수막새와 인동당초문암막새만 출토되고, 再建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아 ‘更造寺’는 帝釋寺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익산지역 백제시대 사찰 중 제석사지에서 가장 늦은 시기의 단엽단관연화문수막새와 함께 부여나 익산의 다른 지역에서도 채용하지 않았던 인동당초문암막새가 출토되고 있어 결국 應驗記에 보이는 再建伽藍은 제석사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應驗記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원래의 제석사지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져야 하지만, 익산 王宮里遺蹟의 굴광판축 목탑지가 주목이 된다.

43) 『三國史記』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太宗武烈王 八年條

『大官寺井水爲血, 金馬郡地流血廣五步, 王薨…』

44) 藤澤一夫, 1977, 『百濟別都益山王宮里廢寺即大官寺考』, 『馬韓百濟文化』 2,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45)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7, 『王宮里』發掘調査 中間報告II, p.317.

왕궁리유적은 주로 백제 무왕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北齊 河清四年의 封子繪墓에서 출토된 蓮瓣文尊과 같은 중국자기의 출토, II B1 형식 수막새 출토, 무왕의 익산 出生 개연성 등을 통해 이미 무왕 이전부터 益山經營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무왕대에 들어와서 왕궁리유적의 가장 중심 지점에 굴광관축의 목탑을 갖는 사찰을 창건하게 되는데 이는 王室의 願刹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주로 II B2형식의 연화문수막새가 사용되고 있어 제석사지보다 앞서는 시기에 건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帝釋信仰은 다시 왕실의 權威를 높이고 왕실을 보호하는 신앙으로 왕실 내에서 성행했고, 內佛堂적인 성격으로 주로 宮域안에 사찰을 세운 점 등을 통해 보았을 때 王宮里百濟廢寺는 제석사지의 전신이거나 최소한 帝釋을 모시는 사찰로 생각된다.

백제시대 王宮里廢寺를 일대의 사찰을 통괄하는 大官寺로 보기도 하며, 太宗武烈王 薨去의 징후로 金馬郡 大官寺가 “三國史記”에 보인다. 왕궁리유적에서도 ‘大官宮寺’ ‘大官官寺’ ‘官宮寺’ 등의 명문와가 보이고 있는데 이는 통일신라시대 명문와로서 현 王宮里五層石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백제시대 사찰이 폐기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오층석탑이 세워지므로 백제멸망 다음해에 나타나는 大官寺가 백제시대 사찰명이라는 판단은 속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판단들이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이라고 한다면 현 제석사지의 창건은 武王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여기에서 출토된 단엽단관연화문수막새와 인동당초문암막새는 640년 이후로 編年되어진다.

지금까지 익산 제석사지의 발굴성과와 함께 “觀世音應驗記”에 보이는 ‘更造寺’의 위치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필자 스스로도 論理的인 비약이 많다고 생각되나 이는 益山文化圈 研究에 있어서 문제 해결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



<圖1> 왕궁리유적출토수막새(ⅡB1형)



<圖2> 왕궁리유적출토수막새(ⅡB2형)



<圖3> 제석사지출토수막새(ⅢB1형)